



기보배 새해 첫 활시위 2013년 국가대표 선수 훈련 개시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양궁 국가대표 기보배가 활시위를 조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동열 감독

SUN '마운드의 진주' 켈까

KIA 미국·일본 스프링 캠프 ... 신인 투수 7명 집중 조련



스프링 캠프에서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된 KIA 신예 투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고영창·손동욱·안우주·김승현·이효상·임준섭·이정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인·이적생 등 '8인 8색' ... 깜짝 스타 탄생 준비 든든한 선발진 받쳐줄 불펜 새 전력 발굴 간간힘

'진주'를 꿈꾸는 KIA 투수들의 생존경쟁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9일 이범호를 비롯한 재활조의 출장을 시작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캠프를 꾸리고 201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투수진과 김주찬 등 주축 야수진이 13일 캠프에 합류한 데 이어 16일 WBC 3인방 그리고 20일 광주에 잔류하고 있는 본진까지 미국으로 향하면서 KIA의 스프링캠프도 본격화된다.

스프링 캠프가 '두근두근' 설레는 이들이었다. 호흡의 진주를 꿈꾸는, 마운드의 무명 선수들이 그 주인공이다.

16일과 20일에 나눠 미국으로 향하는 투수는 손동욱(24)·이효상(23)·고영창(24)·이대환(34)·이정훈(22)·임준섭(24)·김승현(26)·안우주(23) 등 8명. KIA 팬들에게도 낯선 이름들이다.

좌완 손동욱과 우완 이효상·고영창은 프로 첫 스프링 캠프에 나서는 2013 투수이다. 단국대 출신의 손동욱은 지난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KIA 유니폼을 입었고, 경희대 출신의 이효상과 진흥고와 연세대를 거친 고영창은 각각 3·6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은 신인이다.

2년차 좌완 임준섭에게도 첫 스프링캠프다. 경성대 시절 눈길을 끌었던 재목이지만 지난해 입단하자마자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재활의 시간을 보내왔다.

2010년 프로에 입단한 우완 이정훈은 1군에서 단 두 경기에 출전한 미완의 대기. 동성고와 화순고 출신의 우완 김승현과 사이드

암 안우주는 '신고선수 신화'에 도전하는 이들이다. 김승현은 코리아 해치에서 프로의 꿈을 키웠고, 안우주는 동국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까지 LG 유니폼을 입었던 이대환은 방출의 설움을 딛고 KIA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선수.

명조련사 선동열 감독이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들은 기회의 땅에서 생존 경쟁을 펼쳐게 됐다. 사연 많고 꿈 많은 이들의 1차 목표는 2월10일 시작되는 일본 오키나와 캠프다.

KIA는 미국 캠프에서 체력·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소화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실

전 훈련을 진행한다. 14차례의 연습경기가 예정되면서 미국 캠프가 끝날 무렵 실전 무대를 위한 욕식이 가려진다. 중도 탈락없이 일본 열도까지 밟는 게 이들의 목표다.

야구에 대한 간절함은 기존 선수를 못지않다. 또 팔인팔색의 매력을 가진 가능성 있는 재목들이라는 평가다. 특히 신인 3인방은 혹독하게 진행됐던 마무리 캠프에서 선 감독으로부터 1차 검증을 받은 기대주들.

깜짝 스타탄생은 KIA가 절실하게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KIA는 최고의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펜이 아킬레스건이다. 우승 행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펜의 새 전력을 발굴해야만 한다.

마운드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겨울나기가 KIA 캠프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 러브펀드' 2억5551만원 결실

선수·구단 등 기부금 적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의 '타이거즈 러브펀드'가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KIA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강당에서 '기아타이거즈 러브펀드의 날' 행사를 열고 지난 시즌 적립한 2억5551만6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2010년 시작된 '타이거즈 러브펀드'

는 KIA 선수들의 경기 기록에 따라 선수와 구단 펀드 및 기아 자동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 시즌 종료 후 기부금으로 이웃 사랑을 펼치는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2012시즌에는 서재응 등 투수 15명과 김상훈 등 야수 16명, KIA 타이거즈 임직원, 기아자동차 임직원 등 총 3646명이 참여해 총 2억5551만6000원을 모았다. 지난해 2억1047만7000원보다 4500여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오키나와 캠프 팬 참관단 모집

3박4일 일정 ... 35명 선착순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관단을 모집한다.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팬 투어는 전지훈련지를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연습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한 여행 상품으로 내달 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주니치와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 관람과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의 식사 및 사인회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참가 비용은 성인 120만원, 아동(2001년 2월생 이후)는 109만원이다.

참관단에게는 스프링캠프 티셔츠와 모자, 사인볼, 참관 증서가 기념품으로 증정 된다.

모집은 31일까지이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5명 선착순이다. 스프링 캠프 팬 투어는 신청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진행된다. (문의 : 마케팅팀 김찬 사원 070-7686-8043)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은퇴선수 OB 모임 '일구회'로 통합

프로야구 출신 은퇴선수들의 모임이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로 통합된다.

일구회는 16일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회) 산하 프로 은퇴선수협회와 통합을 이루었다. 일구회가 명실상부한 프로야구 출신들의 모임으로 자리 잡으며 은퇴선수들의

권익 향상과 한국야구 발전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일구회는 프로야구 원로들의 모임으로 지난 2010년 1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했지만 같은 해 선수협회 내부에 은퇴선수협이 결성되면서 이원화 됐다. /김여울기자 wool@

<p>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p> <p>(주)대원여행사</p> <p>062)526-7000</p> <p>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p> <p>광주역 062)525-4835</p>	<p>대관령 눈꽃축제 스페셜 올림픽 경기장</p> <p>출발일 2월4일(월) 06:00경 출발(당일)</p> <p>여행비 65,000원</p> <p>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불 포함 : 식사비</p>	<p>정동진일출 대관령 눈꽃축제 스페셜 올림픽 경기장</p> <p>출발일 2월1일~2일(금) 22:00경 광주역출발(무박2일)</p> <p>여행비 85,000원</p> <p>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저녁 도시락 불 포함 : 식사비</p>	<p>태백산 눈꽃축제 석탄박물관 황지연못</p> <p>출발일 2월1일~2일(금) 22:00경 광주역출발(무박2일)</p> <p>여행비 85,000원</p> <p>포함사항 : 무궁화호 왕복열차비, 버스비, 여행자보험료, 조식 1회 불 포함 : 식사비</p>
--	--	--	---